

# 지난달 지역 실업자 8000명 줄었다

## 광주 실업률 2.2%·전남 1.9% 전국 고용률·청년 취업도 호전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지역의 실업률이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1년 12월 및 연간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12월 고용률은 56.5%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9000명), 농림어업(+7000명) 등에서 증가하고, 광공업(-3000명) 부문은 감소했다. 12월 광주의 실업자는 1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명(31.4%) 감소했다. 실업률은 2.2%로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의 12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

락했다. 산업별로 농림어업(+2만1000명)은 증가했지만 광공업(-1만3000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1만1000명)는 감소했다. 12월 전남의 실업자는 1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00명(3.5%) 감소했다. 실업률은 1.9%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도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4만1000명 늘었다. 12월 취업자는 2412만5000명으로 2010년 12월보다 1.4%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들어 취업자 증가폭은

7월 33만5000명, 8월 49만명, 9월 26만4000명, 10월 50만1000명, 11월 47만9000명 등이었다. 석 달째 40만명을 웃돌았지만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증가폭은 둔화하는 모습이다. 12월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고,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7.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내려갔다. 작년 연간 취업자는 242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41만5000명이 늘었다. 연간 실업률은 3.4%로 2010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으며, 연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6%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연합뉴스

## "FTA 농산물 소비로 극복" 전남농협 '식사랑·농사랑 운동'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올해부터 범국민적인 식생활·식문화운동을 펼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식(食)사랑·농(農)사랑 운동'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초고령화된 농촌 인구와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을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농협은 '식사랑·농사랑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2월 10일까지 가정식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가정의 화목증대를 위해 '제1회 우리집 밥상약속 공모전'을 연다.

3인 이상 가정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준수해야 할 '밥상에서의 약속'과 식사와 관련된 가족사진 또는 직접 그린 그림을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또 국민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리 농산물로 만든 계절별 건강식단 개발 보급 ▲유치원생·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식생활개선 부모교실 운영 ▲기업·학교내 식당 대상 '건강식 실천' 운동 ▲'바람직한 먹거리 어린이 체험단' 회원모집 등의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송기기자 song@



11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기아차 임직원과 KIA타이거즈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거즈 러브펀드' 전달식을 열고, 지난 시즌 적립한 기금 2억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기아차 제공>

## 기아차 '타이거즈 러브펀드' 2억원 전달

### 공동 모금회에

KIA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지난 프로야구 시즌 적립했던 '타이거즈 러브펀드'가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기아자동차는 11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김종용 광주공장장과 김조호 KIA타이거즈 단장 및 선수,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거즈 러브펀드 전달식'을 열어 지난 시즌 동안 적립한 2억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타이거즈 러브펀드'는 타이거즈 선수들의 경기 기록에 따라 선수 분

인인 물론 구단 프런트, 기아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해 모은 기부금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이색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0년에 이어 지난해 2회째 실시한 '타이거즈 러브펀드'에는 14명의 선수와 39명의 프런트, 3523명의 기아차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4월부터 9월까지 총 2억1047만7000원을 적립했다. 2010년에는 9300만원을 모았다. 러브펀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수는 김상현, 최희섭, 이병호, 이용규, 김선빈, 안치홍, 이현근, 김상훈, 윤석민, 서재응, 송영민, 유동훈, 박정대,

곽정철 등 총 14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적립금을 모은 선수는 이병호로 올 시즌 17홈런을 기록해 340만원을 적립했다. 1홈런당 20만원을 모았다. 전달식을 마친 타이거즈 선수들과 기아차 임직원들은 광주와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110여명을 초청, 'KIA타이거즈와 함께하는 일일 야구교실'을 열어 야구 꿈나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꿈과 희망을 선사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와 타이거즈는 내년에도 타이거즈 러브펀드를 통해 스포츠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복후 北 송전중단... '암흑시대'

##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3>

### 화순화력발전소 건립 운동 ③

### 도둑전기 성행...해저케이블 도난 '국제 망신'

### 서울 전역에 전선 절취돼 전차까지 울스름

#### ▲ 암흑시대의 특선 해택

연료난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이 전력난이었다. 광복이후 과도기적 혼란상황에서 산업시설의 가동은 울스름 되고 가정을 전등마저 켤 수 없는 형편에 북한은 송전중단까지 겹쳐 온 나라가 일시에 암흑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군사용이나 관공서 및 주요기관단체와 특권층가정에는 소위 특선(特線)이라 하여 비상전력을 공급했는데 아직 공급설비가 혼란스러운 때여서 특수기관단체가 아니더라도 힘만 있으면 전기를 끌어쓰는 관공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 단체나 산업체들은 아예 유력인사를 전기집의 전담이사로 두기도 했다. 일반가정에서는 전기줄을 마련하여 남의 전기줄에 몰래 연결해서 쓰는 도둑전기가 성행했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전기를 달더라도 당시는 수용자가 모든자금을 부담해야 했다. 전주를 마련하기 위해 아름드리소나무를 베어내야 하고 장터를 돌며 전기줄을 사모아야 했기 때문에 산림은 훼손되고 전기줄 값은 급증이었다.

▲ 국제해저케이블 도난사건  
이같은 전선품귀로 말미암아 당시 우리나라에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빈발했다. 6.25한국전쟁

발발직전인 1950년 3월 소련과 한국, 일본,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전선전화기가 하루 아침에 불뚱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당사국간에 큰소동을 빚었다.

한·일 양국의 경찰조사결과 일본 나가사키와 소련 블라디보스토크간을 잇는 우리나라 울진 앞바다 해저에서 약120km에 달하는 케이블 6000관(22톤)이 감쪽같이 절취당한 사실을 밝혀내고 1950년 3월 16일 그 범인으로 김오봉이라는 자를 체포했다. 김씨는 3월 1일부터 8일까지 철선 4척을 동원, 이 막대한 량의 전선을 절취하여 부산, 서울, 대구, 마산 등지에 팔아 넘겼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외무장관은 관공당국에 유감성명을 발표해야 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 서울 전역의 전선도난 사건

이같은 어이없는 사건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일어났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어느날 아침 서울거리에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혀있던 전선이 말끔히 사라지고 전봇대만 앙상하게 서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전차의 트롤리선까지 강그리사라져 시내교통이 울스름되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

다. 즉각수사에 나선 경찰은 서울역을 통해 몰래 반출하려던 전선 3화차분 1백톤을 적발했다. 범인은 어이없게도 서울철도경찰대장 이인강등 3명으로 이들은 전선 약5천톤 씩 1백여원어치를 절취했는데 당시 이 장물이 새어나오자 전선값이 폭락하여 일반가정에서 전화선으로 빨래줄을 땔 정도가 되었다. 전력난이 빚은 웃지 못할 서글픈 역사가 아닐수 없다.

▲ 턱없이 모자란 배전량

이러한 상황에서 1951년 봄 전장이 휩쓸고간 광주·전남의 산업체는 삭막하기 이를데 없었다. 6.25한국전쟁직전 근근히 8천kw에 이르던 전력공급이 전쟁이 발발하자 그나마 중단되고 보성강발전소의 발전량에 가까스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당시 보성강발전소의 발전량은 3,300kw였는데 전화로 말미암은 변압기의 파괴로 인하여 1,500kw밖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6.25전쟁 직전의 공급량 8,000kw에 비하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전하로 피해를 입은 발전시설이나 송배전망의 복구에 나섰으나 전체 복구가 전력사정을 호전시킬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발전시설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이외에 달리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발전소의 건설이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국가의 거시정책에 속하는 것이어서 당장 전차복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위중 (연문인)

## '최고기' 설산물 독주...매출 68% 늘어

최고기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낮아지면서 설 선물 시장에서 독주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유통가에 따르면 국내 한우 사육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50만 마

리 정도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설 선물로 최고기 판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사이트 G마켓은 2~8일 자사를 통해 판매된 설 선

물을 집계한 결과 한우 판매량이 작년 같은 시기(설까지 남은 기간 기준)보다 64% 늘었다. 등심이나 안심 등 구이용이 302%, 갈비점·국갈비가 171% 증가하는 등 특히 인기를 누렸다. 국거리·불고기의 판매는 8%, 사골은 14% 늘었다. /연합뉴스

http://www.hankyultea.co.kr

한국제다

#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지정
-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 L.A 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 02)730-2983    ●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    T.222-2902,3973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2012년도 제20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2년 2월 20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영료 : 5,000원

진행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2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1년 12월 1일(목) ~ 2012년 1월 13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2년 1월13일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문의할 곳

-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지 광신대학교 교학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에 1,700,000원; 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의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직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야여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